

# 광주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나섰다

### 2022년까지 CCTV 2050대 · 비상벨 930대 추가 설치 계획 161억 투입...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확대 · 빅데이터 분석

광주시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방법용 폐쇄회로(CC)-TV 11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앞으로 4년 동안 161억원을 투입해 도시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민선7기 임기 안에 CCTV 2050대와 비상벨 930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선6기(1349대)와 비교해 152% 증가한 것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방법용 CCTV 확대 설치에 총출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019년까지, 도시공원은 2020년까지 100%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반영해 국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택지개발 조성 및 도시공원 조성 등 사업 허가 시 방법용 CCTV 등 도시안전 인프라를 필수시설로 설치토록 했다. 또 CCTV 설치방법 개선, 한전 전



신주 등 공공자원 활용, 통신회선 공동활용 등 구축공법 개선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해 설치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설치 장소는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범죄 발생지, 빈집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2013년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 후 CCTV 증설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5대 범죄가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등 곳곳에 설치된 방법용 CCTV가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112센터, 119상황실 재난 상황실 등 관련 기관은 지난 8월부터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하고 방

범, 재난, 화재, 사회적 약자 등 분야별 연계를 통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12 긴급출동 ▲112 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지원 ▲재난안전상황 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개 분야 시민안전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시는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기간 간 사회안전망 협업체계 구축으로 범죄 검거를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112영상지원서비스를 관할 경찰서 상황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과거 범죄발생지, 관제실적 등 범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 시간대별 선별 집중관제를 실시하고 인적이 드물거나 시설물 위주 관제지역은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등 관제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안전없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광주도 만들 수 없다"며 "총출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CCTV를 증설해 안전관망 실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동구,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모 선정

광주 동구가 광주·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전략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천만 원 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전국 지자체에 확산 가능한 통합사업 모델 발굴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광주 동구를 비롯해 충남 서천, 경남 김해 등 전국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동구가 제안한 '주민중심 만성질환 통합건강증진 사업 모델' 구축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의료기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 ▲민성질환 통합건강증진 코디네이터 육성 ▲민성질환 통합건강증진 관련 사업 추진 ▲주민주도 건강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서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광주 서구는 지난 4일 제27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농성동 농성역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구청 공무원을 비롯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반, 구민감사관, 농성동 자원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포를 통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량 급증에 따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 예방 행동요령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홍보와 겨울철 폭설 대비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 남구, 올해 재난 지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광주 남구는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시설 하우스가 많은 대촌지역과 지난 해 침수피해를 입은 백운광장 및 봉선동 명성이아파트 일대에 지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한다.

남구는 4일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한해 21곳에 지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동음성 통보시스템은 구청 재난 상황실에 마련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동돼 재난상황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메시지 장치이다.

## 북구, 청소년 정책 평가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광주 북구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광주 북구는 "여성이주부가 전국 13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성과 등 3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실사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이에 북구는 청소년 참여 및 공간 활성화,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영역 확대,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광산구 친목회 광친회, 지역화합·발전 다짐

4일 광산구 기관·사회단체장과 기업대표 친목회인 '광친회(회장 김박원)'가 지역인사와 주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청에서 '2019 기해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한 한 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신년회에는 문화공연, 티타임 등으로 진행된 이날 인사회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올해 광산구 핵심 기조인 경제, 안전, 복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4대 정책으로 42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광산구를 만들겠다"며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광산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일궈가자"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 '해적생물' 불가사리 · 성게와 전쟁 "年 4000억 피해...200t 제거 목표"

#### 전남도, 1kg당 1000원에 매입해 비료로 활용 예정

전남도는 유용한 패류 및 해조류 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와 성게 퇴치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불가사리, 성게는 연안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해적생물이다.

포식력과 번식력이 강하고 몸체가 절단돼 신체의 1/5만 있어도 재생돼 회복량 감소 및 어업 작업시 노동력 기증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불가사리는 하루에 바지락 16마리, 피조개 1.5마리, 전복 2마리를 포식해 수산생물 연간 피해 규모가 3000억~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녀와 허가어선의 통발, 패류형망 새우조

망 등의 어구로 잡은 불가사리, 성게를 1kg당 1000 원에 구매해 200t을 제거할 계획이다.

잡아 올린 불가사리를 비료로 사용할 경우 복합비료보다 10~50% 수확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 공급해 시비제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재활용이 곤란할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립한다는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가사리, 성게 퇴치사업은 FTA 등 국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구제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광주시,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올해 2만여개

#### 전년비 35% 증가한 558억 투입 노인취업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

광주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광주시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총 558억3000만 원을 투입해 2만36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은 146억7500만원(35.6%), 참여자 수는 4464명(28.1%)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1만8059명, 시장형 2765명, 인력개선형 1047명 등이며 올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에 492명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돌봄서비스나 취약계층 지원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의 활동시간과 수당이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장애인어르신을 대

상으로 하는 '빛고을 질서지킴이' 사업과 어린이놀이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과 전통놀이 체험을 도와주는 '꾸러기 놀이대장' 사업 등 따뜻한 복지와 세대 간 통합을 구현하는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학교 화장실 청소 업무와 연계한 '우리학교 깔끄미' 사업도 교육청과 협조해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종합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상담, 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시기도 앞당겨진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 시작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내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된다.

서은홍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대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송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 미래창조 ·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